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아시아나항공과 쌍용자동차가 어렵다고 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고심이 깊어간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도산은 산업생산력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고용과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어서 사회 전반에 손실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GM에 약 500억 달러를 지원했다. 위기가 지나고 GM이 정상화되자 미국 정부는 2013년 말까지 GM 지분을 다 처분해서 390억 달러를 회수했다. 100억 달러 넘게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미국 정부의 GM 구제는 120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고 349억 달러의 세수를 보냈다고 한다. 구 GM의 주주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었지만 성공작이었다. 민간과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다르다.

대기업의 사업이든 개인의 투자이든 이익이 나면 해당 기업과

개인의 몫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위와 나누거나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경제위기가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하면 그 파장을 해당 기업과 주주들뿐 아니라 사회도 분담하게 된다. 금융지원, 세금 관련 지원, 심지어는 산업은행의 인수 등이 다.

이 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잘 드러났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사업을 영위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고 주주들은 배당이나 주가 상승이익을 거둔 후 뽕뽕이 흩어졌다. 저축도 경영자들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을 받았다.

막상 금융위기로 도산이 발생하자 결국은 국가 지원으로 회생했다. 대형 은행이 도산하면 그 파급효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때문이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다. 심지어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금융기관들

이 있어 미국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 점을 잘 알고 그에 맞추어 행동한다는 것이다. 쉽게 '대마불사' 논리다. 이익은 내가 다 차지하고 손실은 사회가 분담할 것을 알면 위험인수 성향이 높아지고 자본비용은 하락한다.

최고의 사업 조건이다. 경영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경영권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최대한 향유한다. 구제금융 자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것도 회사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규칙의 하나에 따랐을 뿐이고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했다.

기업들이 이익의 사유화에 몰입하지 않고 평소에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유사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가 분담해 줄 기초를 쌓는 것이다.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정부에 명분을 준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행, 주주들의 자구

노력,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업은 경영개선으로 그에 보답하는 선순환이 확립되어야 한다.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은 모두가 협력해서 극복해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증권시장이 좋은 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위에 나누어주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손해가 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없었는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사회에 큰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억울한 피해가 아니면 사회화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개인의 손실을 사회가 부담하는 좋은 예는 코로나19 환자다. 대다수 환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 순수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감염을 막아야 할 유인이 있어서 국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고통은 분담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은 지키면서 손실이 나면 사회가 부담할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시기에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손실의 사회화 행동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社 說

사상 첫 온라인개학, 슬기롭게 대처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교육사에 처음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다. 9일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중·고 1~2학년과 초등 4~6학년, 20일은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온라인 수업이라 해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실에 한데 모여 공부하는 것과는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새로 입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담임교사도 바뀌고 급우들도 낯설 것이다. 대학이 아닌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나 예행연습 기회도 없었던 터라 일선 교육 현장에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아무리 베테랑 교사라도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고 평가할지 선뜻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실제 온라인 교실이 문을 열기도 전에 곳곳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원격교육플랫폼 'e학습터'에서는 최근 상당량의 자료가 손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e학습터는 교사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습방'과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실'로 구성된다. 온라인 수업이라 해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실에 한데 모여 공부하는 것과는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화상회의에서조차 연결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용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해킹과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어 우려를 낳는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공백을 막으려면 스마트 기기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시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교육 주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당당함이 필요하다

매사에 당당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감춰두고 속앓이를 할 필요 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후련할까?

내 자신에게 당당함이 필요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감이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초조함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걸을 때도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위 환경에 기죽지 않으며 아니면 아

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당신을 놓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도 역시 남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준비됨이 없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매 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고 달아나려고만

한다.

그 만큼 내에 대한 준비감이 부족하고 남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 있게 될 다듬어진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옛날에는 알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요즘 시대는 자기 홍보시대 붓물을 이루는 대세이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면접이 두려워 지원을 포기하고 언어가 어렵다고 유학을 포기하고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나 미래가 없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히 사람 앞에 드러워진 거대한 장벽 안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그 벽을 깨고 넘어서야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두려움과 버거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노후와 도전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분명 남 앞에서 당당함이 표출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의 주장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족했던 의기소침도 당당함으로 표출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언제 어디 선지 당당함을 완성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이고 당신의 노력은 세상 속에서 당당한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